



한국 고대 토착신앙의 담당자

Korea's Representative of the Ancient Indigenous Beliefs

저자 (Authors)	박은애 Park, Eun-ae
출처 (Source)	신라문화 38 , 2011.8, 115-136(22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38 , 2011.8, 115-136(22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98539
APA Style	박은애 (2011). 한국 고대 토착신앙의 담당자. 신라문화, 38, 115-13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19 11:1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 고대 토착신앙의 담당자

박 은 애*

<目 次>	
I. 서 론	III. 5세기 이후 토착신앙의 담당자와 변화 양상
II. 5세기 이전 토착신앙의 담당자	1. 5세기 이후 사회적 변화
1. 巫의 역할	2. 토착신앙 담당자의 변화
2. 老嫗의 역할	IV. 결 론
3. 日者의 역할	

[국문초록] 한국 고대 토착신앙의 중심에는 초자연적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토착신앙의 담당자이다. 巫·老嫗·日者 등은 『三國史記』·『三國遺事』에서 토착신앙의 담당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시기에 등장하여 이에 주목된다. 이들은 또한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왕의 측근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巫의 경우 1~3세기에 기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占卜을 통한 왕의 자문자적 역할과 함께 治病을 담당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巫는 왕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층을 대상으로 治病과 자문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老嫗의 역할은 왕이나 왕비 등 왕실 주요 인물의 養育 능력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으며, 소지마립간 22년 이후에는 老翁과 老人이 등장한다. 이것은 신라 정치체제가 완비되어가고 정복단계에 들어서면서 남성의 지위가 격상되었고, 또 불교의 영향을 받아 남성이 숭배된 까닭에 老嫗가 老翁이나 老人으로 바뀌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日者의 경우 주로 천문에 대한 관측과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그 변화를 해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日者는 왕에게 존경을 받거나 권위를 인정받았다 기보다는 천체를 관측한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을 왕에게 고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으므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왕에 대한 조언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日者는 마립간기 이후 국가의 관제에 편입되어 日官으로 나타난다.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세종대학교·창원대학교 사학과 강사

[영문초록] Indigenous beliefs of ancient Korea, the supernatural world and to link the human world on the basis of special skills or knowledge, who had played a role. These indigenous people to play a role is a person of faith. Mu(巫)·Nogu(老嫗)·Ilga(日者) 『Samguksagi(三國史記)』·『Samgukyusa(三國遺事)』 emerged as representatives from the indigenous faith, and also appeared at the same time, this is noted by. They also are closely associated with politic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king's entourage will be accounted.

For 巫 1-3 shows that strength is concentrated in the article, and divination through the king's advisory role and efforts had been treated with a bottle. In addition, Mu(巫) individual layers of a wide ranging consultation is intended to treat diseases characterized by the role of the who can be called.

The role of the kings and queens, including Nogu(老嫗) leading figures of the royal family is most important parenting skills, and possess Maripgan '22 (500) after the Noong(老翁) and Noin(老人) appeared. It is equipped with the political system to go Silla conquered At the turn of the steps have been upgrading the status of men, and men were worshiped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therefore there Noong(老翁) or (老人) could be viewed as inter-turns.

Ilga(日者), the mainly for astronomical observations and through the observation of unusual phenomena to interpret the changes can be seen that takes on the role Ilga(日者) recognized the authority of the king, receiving homage observations of celestial bodies and their interpretation to the king for the pain of his dutie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its mission king responsible for the natural role of advice would have been. Ilga(日者) also in control of the country since the maripgangi incorporated into Ilgwan(日官) appear.

[주제어] 무(巫, Mu), 노구(老嫗, Nogu), 노인(老人, Noin), 노옹(老翁, Noong), 일자(日者, Ilga), 일관(日官, Ilgwan)

I. 서론

한국 고대의 전통적 신앙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토속신앙, 무속신앙, 원시 신앙, 토착신앙 등으로 명명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용어는 토착신앙이라고 생각한다. 토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그곳에서 뿌리 내리다’라는 뜻과 함께 ‘그곳에 정착하다는’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즉 토착신앙이라는 개념은 대대로 내려오는 한국 고대의 전통신앙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

된다. 그리고 전통과 답습이라는 가치판단의 필요성이 없어 한국 고대 신앙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된다.

한편, 한국 고대의 전통적 신앙을 종교의 한 형태로 분류하고 종교 공동체의 중심에서 초자연적 세계와 인간세계를 교류시키는 사람을 ‘종교직능자’라 칭하기도 한다.¹⁾ 이런 종교의 직능자를 공수형과 무공수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종교직능자를 공수형과 무공수형으로 나누는 것은 우선 한국 고대의 전통신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사면으로 보고 이것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는 것이며, 또한 종교의 의미는 교단과 함께 종교적인 체제가 성립되어야 보다 분명해지는 것이다.

한국 고대 토착신앙의 중심에는 초자연적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기록상 토착신앙의 담당자로서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것은 『三國志』의 天君으로, 이는 삼한시대 小國내에서 제사의식을 주관하던 제사장이었다. 각 소국의 정치적·경제적 중심지인 國邑에는 군사 활동을 지휘하고 교역을 주관하는 세속적 지배자인 國邑의 主帥와 함께 각종 제의를 담당하는 전문적 司祭인 天君이 있었다.²⁾

巫·老嫗·日者 등은 『三國史記』·『三國遺事』에서 토착신앙의 담당자로 등장한다. 이들은 불교 수용 이전의 토착신앙 담당자로서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왕의 측근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구가 풍부하지는 못하였으며, 각각 개별적으로 연구 되었다.

『三國史記』·『三國遺事』의 기록에 나타나는 巫에 대해서는 占卜을 통한 왕의 자문자적 역할과 治病을 담당하는 것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巫는 왕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층을 대상으로 治病과 자문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³⁾

다음으로 老嫗는 대부분 신라 上代의 기록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老嫗는 처음에 ‘늙은 할머니’쯤으로 해석되었지만 관련된 사료를 모아 분석한 결과 保護靈

1) 徐永大, 1997, 「韓國古代的 宗教職能者」, 『한국고대사연구』 12.

2) 金貞培, 1978, 「蘇塗의 政治史的 意味」, 『歷史學報』 79, pp. 140~16.

3) 李能和, 1927, 「朝鮮巫俗攷」, 『李能和全集』 6; 任東權, 1967, 「三國時代의 巫·占俗」, 『白山學報』 3; 辛鍾遠, 1990, 「古代의 日官과 巫」, 『국사관논총』 13; 1991,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최석영, 1996, 「巫와 日官의 갈등에 대한 역사적 고찰」, 『비교민속학』 13; 徐永大, 1997, 앞의 논문; 金在庚, 2002, 「新羅 土着信仰의 分化發展」, 『歷史學報』 174; 2007, 「신라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사상사 연구」, 민족사.

으로써 神母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老嫗가 神母의 현신에 의해서 나타날 때 사머니즘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되었다.⁴⁾ 이에 따르면 老嫗는 왕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왕의 조언자적 역할과 왕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돕는 보호령적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또 소지마립간 이후 老人·老翁이 출현하는 것은 정치체제가 완비되어 가고, 정복전쟁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老嫗가 남성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는 老嫗가 老翁 또는 老人으로 변화한 것으로, 불교의 전래 이후 불교의 영향을 받아 남성신이 숭배된 까닭에 老翁이나 老人으로 정립되어 갔던 것이라 한다. 다른 연구에서는 老嫗의 기원을 중국에서 찾는 것이 특징이다. 즉 老嫗는 본래 중국 계통의 여신으로 통일신라시대에 중국의 해상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보타락가산 계통의 관음신앙이 신라에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견해도 있다.⁵⁾

日者는 天文 현상을 관찰하고 占卜의 기능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⁶⁾ 그러나 『三國史記』·『三國遺事』에 등장하는 日者と 日官이 서로 같은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日者と 日官이 동일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 나오는 日者と 日官이 동일한 것임을 근거로 고대의 日者と 日官도 같은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8세기 중엽 이후의 日官은 天文博士와 供奉卜師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⁷⁾ 日者と 日官을 별개로 보는 견해에서는 日者는 천체 현상의 관찰과 해석을 통하여 占候·占筮를 행하는 자로 보고, 日官은 천체현상 관찰과 현상을 통하여 왕의 자문자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 있다.⁸⁾

이와 같은 기왕의 연구를 통해 단편적이거나 토착신앙 담당자의 종류와 역할,

4) 崔光植, 1981, 『『三國史記』所載 老嫗의 性格』, 『史叢』 25, pp. 1~23; 2007, 『한국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학교출판부.

5) 송화섭, 2002, 『韓國古代社會에서 聖母와 老嫗』, 『白山學報』 64, pp. 176~181.

6) 辛鍾遠, 1980, 『古代 日官의 性格』, 『韓國民俗學』 12; 1984, 『三國史記 祭祀志 研究』, 『史學研究』 38; 1990, 앞의 논문; 1992, 앞의 책; 全相運, 1985, 『高句麗의 科學과 技術, 그 研究現況과 課題』, 『東方學志』 49, p. 27; 李熙德, 1997, 『高麗의 天文官制』, 『東方學志』 96; 張寅成, 1994, 『百濟의 術數』, 『百濟研究』 24; 金昌賢, 1992, 『高麗時代 日官에 관한 一考察 -日官의 役割과 그 地位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45; 崔錫榮, 1996, 앞의 논문; 姜英卿, 1991, 『新羅 傳統信仰의 政治·社會的 機能 研究』, 淑明女子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05, 『고대한국 무속의 역사적 전개』, 『한국무속학회』 10; 金在庚, 2002, 앞의 논문; 2007, 앞의 책.

7) 辛鍾遠, 1990, 앞의 논문, pp. 38~44.

8) 崔錫榮, 1996, 앞의 논문, pp. 610~612.

특징 등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巫나 老嫗, 日者는 같은 시기에 등장하기도 하며, 그들 각자가 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알려진 토착신앙 담당자 각자의 역할뿐 아니라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三國史記』·『三國遺事』에 나타나는 한국 고대 토착신앙의 담당자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초기국가시기에는 자연의 천재지변이 왕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의 토착신앙의 담당자의 역할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마립간기에 접어들면서 왕권이 점점 강화되어감에 따라 토착신앙의 담당자의 역할을 점점 줄어들게 되었을 것이며, 왕의 자문자적 역할은 줄어들었을 것이며, 이들은 관부에 속해 국가의 제도로 편입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불교의 수용 이후 많은 정치·사회적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등을 통해 한국 고대 토착신앙의 담당자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5세기 이전 토착신앙의 담당자

1. 巫의 역할

『三國史記』에서 巫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남해차차웅 즉위년 조에 나타난다. 신라왕의 즉위 기사에서는 왕들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왕의 신이함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왕은 남다른 외모를 지니고 있으며 앞일을 미리 아는 예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1) 南解次次雄立 [次次雄 或云慈充 金大問云 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 尙祭祀 故畏敬之 遂稱尊長者爲慈充] 赫居世嫡子也(『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 一 南解次次雄).

가-1)의 사료는 南解次次雄 즉위에 관한 사료로 ‘次次雄’이라는 왕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차차웅은 ‘慈充’이며 김대문에 의하면 방언으로 巫를 말하고, 世

人들이 巫로 하여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받들고 있다고 하였다. 차차웅·자충이라는 말은 고아시아어에서 巫王을 의미하는 자잔(jajan)이라는 말과 공통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에 의하면 차차웅은 ‘巫王’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라 왕호로서 차차웅 이외에 이사금이란 칭호가 있는데 이 명칭 역시 신라 초기 왕의 성격이 샤먼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9)

남해왕의 기사에 남해왕이 차차웅 곧 巫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국 고대사회의 초기왕이 司祭王의 직능을 지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⁰⁾ 이와 같이 왕 그 자체가 巫인 상태에서 점차 제정분리가 강화되면서 巫적인 기능은 分化·轉移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류는 南解次次雄이 始祖墓를 만들어 四時로 제사하면서 그 주관을 親妹 阿老에게 맡겼던 사실에서도 일부 시사된다. 이때 阿老가 왕과 유사한 巫的 인물로 본다면 미세하지만 巫人集團으로의 기능 분화 흔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¹⁾

가-2) 十九年秋八月 郊豕逸 王使託利斯卑追之 至長屋澤中得之 以刀斷其脚筋 王聞之怒曰 祭天之牲 豈可傷也 遂投二人坑中殺之 九月 王疾病 巫曰 託利斯卑爲 祟 王使謝之 卽愈(『三國史記』 卷十三 高句麗本紀一 琉璃明王 十九年).

유리왕 19년 가을 8월에 교제에 쓸 돼지가 도망하자 이를 쫓아가던 탁리와 사비가 돼지 다리 힘줄을 끊게 되었는데 왕이 祭天에 쓸 희생을 상하게 했다 하여 탁리와 사비를 해하였다. 그런데 9월에 왕이 병이 나서 巫에게 물었더니 죽은 탁리와 사비가 병의 근원이라 하여 왕이 사람을 시켜 사죄하였더니 병이 나왔다. 이 사료를 통해 巫가 치병을 위해 짐을 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¹²⁾

또 다음 사료를 통하여 巫가 치병 역할 외에 자문자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9) 張志勳, 1997, 『古代國家의 統治理念에 대한 一考察』 『韓國史研究』 98, pp. 53~54.
10) 徐永大, 1997, 앞의 논문, pp. 215~219.
11) 金在庚, 2002, 앞의 논문, p. 16.
12) 이 외에도 巫의 치병은 『三國遺事』 卷3 興法3 阿道基羅를 통하여 성국 공주의 치병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으며, 『三國遺事』 卷5 神呪6 密本摧邪 김양상을 치병하려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巫의 치병이 왕 외에 여러 계층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李能和, 『朝鮮巫俗攷』 『李能和全集』 6, 1927; 任東權, 『三國時代의 巫·占俗』 『白山學報』 3, 1967; 辛鍾遠, 앞의 논문, 1990; 앞의 책, 1991; 최석영, 앞의 논문, 1996; 徐永大, 앞의 논문, 1997; 金在庚, 앞의 논문, 2002; 앞의 책, 2007)

가-3) 秋七月 王田于平儒原 白狐隨而鳴 王射之不中 問於師巫曰 狐者妖獸非吉祥 況白其色 尤可怪也 然天不能諄諄其言 故示以妖怪者 欲令人君恐懼修省 以自新也 君若修德 則可以轉禍爲福 王曰 凶則爲凶 吉則爲吉 爾旣以爲妖 又以爲福 何其誣耶 遂殺之(『三國史記』 卷十五 高句麗本紀三 次大王 三年).

가-3)의 기사는 차대왕 3년에 흰여우가 나타나 왕이 이것을 쏘았으나 맞추지 못하였는데, 이 흰여우에 대하여 師巫에게 자문을 구하는 기사다. 師巫는 왕이 자성하지 않음을 하늘이 흰여우를 통하여 보여주는 징조라 하였는데, 이 말 때문에 왕의 노여움을 사서 처형당했다. 앞에서 살펴본 남해 차차웅조를 통해서 巫는 귀신을 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說文解字』 狐條에 따르면 ‘鬼所乘也’라 해서 귀신이 여우를 탄다고 되어 있으며 더욱이 흰여우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흰여우는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차대왕 재위기간 동안에 정치가 불안정한 동시에 천재지변까지 되풀이되면서 사회불안이 계속되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존재다. 또한 이는 차대왕 20년(165) 차대왕이 椽那牲衣 明臨答夫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왕의 측근에서 국정에 관한 조언자적 역할을 하는 巫의 존재다. 이때 師巫가 처형당하는 것에 대해서 師巫의 지위가 아직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제정일치의 사회에서 제정분리로 넘어가면서 토착신앙의 권위보다 정치적 권위가 강화되었고, 토착신앙의 권위는 정치적 권위의 종속 내지 부수화 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착신앙의 권위가 차츰 약화 되어가고 있는 입장이므로 巫의 지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¹³⁾

그러나 巫가 스승 ‘師’를 칭하고 있다는 점은 師巫가 오히려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았던 존재였음을 알게 해준다. 이 師巫는 고려시대의 국사나 왕사에 해당하는 巫의 지위로 생각된다. 따라서 師巫의 존재는 아직까지 일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던 토착신앙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師巫의 말은 왕의 정치 결정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2. 老嫗의 역할

13) 徐永大, 1997, 앞의 논문, p. 222.

고대에는 초기에 여성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화는 부여에서 신묘에 모셔져 제사되고 있으며, 소서노는 고구려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백제에서도 국모로 추앙되었다. 또한, 신라의 알영은 혁거세와 동등하게 二聖으로 불렸다. 또한 산신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나타난다. 老嫗는 이렇게 존경받던 여성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여성 중에서도 나이가 들었다는 점에서 연장자 즉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聖智人)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三國史記』에 나타나는 老嫗는 대부분 上代에 나타나고 있으며, 모두 왕실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老嫗가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老嫗에 대한 기사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시조 박혁거세와 함께 二聖으로 불리는 閼英의 탄생설화이다.

나-1) 五年 春正月 龍見於閼英井 右脇誕生女兒 老見而異之 收養之 以井名名之 及長有德容 始祖聞之 納以爲妃 有賢行 能內輔 時人謂之二聖(『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一 始祖 赫居世居西千 五年).

나-2) 立 [一云吐解] 時年六十二 姓昔 妃阿孝夫人 脫解本多婆那國所生也 其國在倭國東北一千里 初其國王 娶女國王女爲妻 有娠七年 乃生大卵 王曰 人而生卵不祥也 宜棄之 其女不忍 以帛卵 寶物置於中 浮於海 任其所往 初至金官國海邊 金官人怪之不取 又至辰韓阿珍浦口 是始祖赫居世 在位三十九年也 時海邊老母 以繩引繫海岸 開見之 有一小兒在焉 其母取養之 及壯身 長九尺 風神秀朗 知識過人(『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一 脫解尼師今).

나-1)의 사료는 알영의 탄생에 관련된 내용이다. 알영은 용에게서 태어나 혁거세의 왕비가 되는데, 여기서 老嫗는 신라의 시조비인 알영을 키우는 養母로 나타난다.¹⁴⁾ 또 나-2)에서는 신라 4대 탈해왕을 양육하는 母가 또한 老嫗로 표현되어 있다. 나-1)과 나-2) 사료를 통해 老嫗는 왕비와 왕의 養母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에는 해변의 老母가 탈해를 발견하여 키운 것으로 되어 있으나, 『三國遺事』에는 혁거세왕의 ‘海尺之母’로서 계림 동쪽의 하서지촌 아진포에 사는 아진의선이 탈해를 발견하여 양육하는 老嫗로 되어 있다. 왕과 왕비의 養母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老嫗의 정치적 역할이 상당하여 왕의 정치 결정의 역할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었을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초기에 老嫗의 역할은 왕이나 왕비 등 왕실 주요 인물의 養育 능력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

14) 崔光植, 1981, 앞의 논문, pp. 1~3.

나-4) 秋九月 王幸捺已郡 郡人波路有女子 名曰碧花 年十六歲 眞國色也 其父衣之以錦繡 置輦幕以色絹獻王 王以爲饋食 開見之 斂然幼女 怪而不納 及還宮 思念不已再三微行 往其家幸之 路經古郡 宿於老之家 因問曰 今之人 以國王爲何如主乎 嫗對曰 衆以爲聖人 妾獨疑之 何者 竊聞王幸捺已之女 屢微服而來 夫龍爲魚服 爲漁者所制 今王以萬乘之位 不自慎重 此而爲聖 孰非聖乎 王聞之大慙 則潛逆其女 置於別室 至生一子 冬十一月 王薨(『三國史記』卷三 新羅本紀三 炤知麻立干 二十二年).

나-4)의 사료는 소지마립간 22년(500) 9월에 날이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타군의 老嫗가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자신에 대해 어떠한 평이 있는지를 老嫗에게 물었는데, 老嫗는 왕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이에 왕이 부끄러워하였다. 소지마립간을 전후한 이 시기의 신라는 국내의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대비하여 백제와의 동맹관계를 강화하였고 많은 산성을 축조하였다. 한편 사상적으로 불교가 고구려로부터 들어오고 있었다. 소지마립간이 일선군과 날이군에 자주 갔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⁵⁾

이 사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타군에 老嫗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巫와 日官이 왕의 주위 있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老嫗가 왕 순수시나 왕실 밖에서 자주 출현하는 것은 老嫗가 巫나 日官과는 달리 왕의 제도권 밖에 위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에서 알아 본 것에 따르면 신라의 초기 老嫗는 양육 보호의 역할이 중시 되었으며, 왕실 밖에서 왕의 자문자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부여의 老嫗의 존재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老嫗는 경험을 많이 취득한 연장자의 개념인 賢者 존재로써 왕에게 자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백제에도 老嫗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신라와 부여의 老嫗의 역할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나-5) 十三年 春二月 王都老嫗化爲男 五虎入城 王母薨 年六十一歲(『三國史記』卷二十三 百濟本紀一 溫祚王 十三年).

나-6) 二十三年 春正月 王都老嫗化狐而去 二虎鬪於南山 捕之不得(『三國史記』卷二十六 百濟本紀四 東城王 二十三年).

15) 姜英卿, 1991, 앞의 논문, pp. 119~124.

나-5)와 나-6)은 백제 老嫗에 관한 기록이다. 나-5)의 사료는 온조왕 13년에 왕도의 老嫗가 남자로 변화하였는데, 그 후 王母가 죽었다. 나-6)에서는 동성왕 23년 老嫗가 여우로 변화하였다. 왕이 백가를 시켜 가림성을 지키게 하였는데 백가가 병을 핑계로 거절하였으나 왕이 승낙하지 않아 백가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이후 동성왕은 백가가 보낸 사람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 기록에서 보이는 백제 老嫗의 특징은 왕모가 죽거나 왕이 죽는 것처럼 불길한 일이 있을 때 남자나 여우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老嫗가 불길한 일에 대한 징후를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3. 日者의 역할

日者에 관한 기왕의 연구는 대부분 日者と 日官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료상에는 1~3세기까지만 日者의 기사가 나타나고 있고, 5세기 이후의 기사는 日官으로 변화되어 나타나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日者と 日官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¹⁷⁾

『三國遺事』·『三國史記』에 日者의 기록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三國史記』 백제본기 온조왕조의 기사다. 백제에서 日者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樂浪¹⁸⁾을 통하여 중국의 선진 문물을 빠르게 받아 들였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¹⁹⁾

다-4) “二十五年 春二月 王宮井水暴溢 漢城人家馬生牛 一首二身 日者曰 井水

16) 최광식, 2007, 앞의 책, pp. 316~317.

17) 중국 사서에 나타나는 日者·日官의 개념을 통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면, 『史記』 日者列傳을 통해서 日者는 천체현상에 대한 관찰과 占卜을 행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日官은 天子에 속하는 曆官이며 『後漢書』 張衡傳에 의하면 천문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천문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日者と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日官은 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측면에서 日者와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사에서 日者と 日官은 역사상 천체현상의 관찰과 해석을 통하여 전자가 占候·占筮를 후자가 천자의 측근으로서 역할 하였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18) 『三國史記』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4년의 기사를 통하여 樂浪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四年 春夏 旱饑疫 秋八月 遣使樂浪修好”(『三國史記』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4년).

19) 張寅成, 앞의 논문, 1994, 138쪽.

暴溢者 大王勃興之兆也 牛一首二身者 大王并鄰國之應也 王聞之喜 遂有并吞辰馬之心”.²⁰⁾

다-4) 사료를 살펴보면 온조왕 25년(7) 춘 2월에 왕궁의 우물물이 갑자기 넘치고 한성인가에서 말이 소를 낳았는데 머리가 하나에 몸이 둘이었다. 이에 대해 日者가 “우물물이 갑자기 넘친 것은 대왕이 발흥하는 조짐이고, 소가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인 것은 대왕이 인국을 합병할 징조입니다” 라고 해석하니, 왕이 이를 기뻐하며 마침내 진한·마한을 병합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백제의 日者는 자연의 災異를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정치 특히 백제의 대외적인 팽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日者의 적극적인 해석은 왕이 진한과 마한을 병합할 마음을 가지게 하였으며 곧 다음해인 온조왕 26년에 마한을 병합하게 된다.

온조왕 26년 7월 왕은 “마한이 점점 쇠약해지고 그 백성의 마음에는 틈이 생겨 그 세력이 능히 오래지 않을 것으로 반드시 다른 나라를 아우르는 바가 될 것이니, 이는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찬 것 같이 누우친들 소용이 없을 것이어서 먼저 이를 취하여 뒷날의 한탄을 면하도록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마한 병탄의 뜻을 분명히 하고, 10월에 왕은 군사를 내어 사냥을 한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몰래 마한을 습격하여 마침내 그 국읍을 병탄하였다.²¹⁾ 다만 圓山城과 錦峴城의 두 성만을 굳게 지켜 항복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을 日者가 풀이하고 정황에 맞게 왕에게 조언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日者가 천문과 자연현상을 관측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왕에게 자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 국가의 왕위 교체는 천재지변·변이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초기 국가 단계에서 천문현상·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관찰과 풀이를 통해 왕의 자문 역할을 하였던 日者의 영향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구려의 日者 관계 기사는 『三國史記』 권15 高句麗本紀3 次大王 4년조에 나온다.

다-6) “四年 夏四月丁卯晦 日有食之 五月 五星聚於東方 日者畏王之怒 誣告曰

20) 『三國史記』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25년.

21) “二十六年 秋七月 王曰 馬韓漸弱 上下離心 其勢不能久 爲他所并 則昏亡齒寒 悔不可及 不如先人而取之 以免後艱 冬十月 王出師 陽言田獵 潛襲馬韓 遂并其國邑 唯圓山錦峴二城 固守不下”(『三國史記』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26년).

是君之德也 國之福也 王喜”.²²⁾

次大王 4년 5월 五星이 동북에 모이자, 日者가 왕이 노할 것을 두려워하여 거짓을 고하는 기사이다. 즉 이때 나타나는五星의 징조에 대하여 日者가 왕이 노여워할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고하기를 “이 현상은 임금의 덕이요 나라의 복이다.”라고 하였더니 차대왕이 기뻐하였다는 것이다. 이 기록으로 보면五星이 한데 모인 현상은 분명 어떠한 흉한 징조를 드러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차대왕 4년에 東方에 모인五星은 중국에 크게 이로운 징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구려에 대해서는 불리한 징조로 해석된다.²³⁾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 수록된 차대왕 4년의五星기록을 군주의 德과 관련시켜 생각하면 차대왕은 즉위하여 2년에 高福章을 죽이고 3년에는 태조왕의 장자 莫勤을 죽였으며 그의 아우 莫德도 두려워 마침내 자살케 하였다. 마침내 왕은 재위 20년에 明臨答夫에 의해 시해된다. 차대왕 4년 5월의五星 집합을 일자가 관찰하고 왕에 대한 매우 불길한 징조로 해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불길한 징조에 대하여 거짓으로 왕에게 아뢰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신라의 日者 관련 사료는 『三國遺事』 권1 紀異1 延烏郎細烏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7) “細烏怪夫不來 歸尋之 見夫脫鞋 亦上其巖 巖亦負歸如前 其國人驚訝 奏獻於王 夫婦相會 立爲貴妃 是時新羅日月無光 日者奏云 日月之稱 降在我國 今去日本 故致斯怪 王遣使來求二人 延烏曰 我到此國 天使然也 今何歸乎 雖然朕之妃有所織細絹 以此祭天可矣 仍賜其絹 使人來奏 依其言而祭之 然後日月如舊 藏其絹於御庫爲國寶 名其庫爲貴妃庫 又都祈野”.²⁴⁾

阿達羅王 4년(157)에 동해변의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갔더니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었는데, 日者가 아뢰기를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내려왔었는데 지금 일본으로 가니 이런 변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사자를 보내어 두 사람이 돌아오도록 청하였더니 연오가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그렇게 시킨 것인데 지금 어찌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나의 妃가 짠 비단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지내면 될 것이다”라 하였다.

22) 『三國史記』 권15 高句麗本紀3 次大王 4년.

23) “五星分天之中 積于東方 中國大利 積于西方 夷狄用兵者利”(『漢書』天文志6).

24) 『三國遺事』 권1 紀異1 延烏郎細烏女.

그런 후에 해와 달이 예전과 같아졌다.”

여기서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일식·월식 현상을 두고 한 말이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아달라왕 13년(166)에 실제로 일식이 있었다고 한다. 일식현상에 대하여 정치적인 해석을 붙일 때에는 태양이 군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군주에 대한 반역이나 나쁜 세력의 침범으로 해석되었다.²⁵⁾ 따라서 연오랑 세오녀 설화는 아달라왕대의 일식현상을 관찰한데서 나온 전승일 가능성이 크며 아달라왕 대에 왕을 위협하는 세력의 반역이나 나쁜 세력의 침범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日者가 일식을 두고 해와 달의 精靈이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 설명하는 것은 당시 일본과의 왕래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내용일 것이다. 어쨌든 日者는 해와 달이 없어지는 천문현상을 관찰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 후에 왕에게 아뢰는 것이다.²⁶⁾

앞에서 살펴본 백제·고구려·신라의 日者 사료 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日者는 천문현상이나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풀이를 통하여 왕에게 자문자적 조언을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천문현상이나 비정상적인 현상은 국가의 중대사로 왕의 정치 결정이 국가의 존망에 중요한 일이었다. 日者의 천문과 자연현상 풀이는 왕의 정치 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²⁷⁾

Ⅲ. 5세기 이후 토착신앙의 담당자와 변화 양상

1. 5세기 이후 사회적 변화

이 시기의 신라는 마립간체제가 시작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이전과 다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립간시기는 내부적으로 이사금시기의 읍락국가가 마립간에

25) 李熙德, 『高麗時代の 天文觀과 儒敎主義的政治理念』 『韓國史研究』 17, 1977; 『韓國古代自然觀과 王道政治』, 혜안, 1999, p. 26.

26) 辛鍾遠, 앞의 논문, 1992, pp. 33~34.

27) 박은애, 2007, 『한국 고대의 日者와 日官』 『지역과 역사』 27, p. 155.

의해 통합되는 시기이며, 외부적으로 전진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중국에 신라의 존재를 알리는 시기이다. 신라는 마립간의 체제의 성립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면서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호도 왕으로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지배체제를 정비하여 중앙집권적 국가로 나아가게 되었다.

또한 신라의 통치조직에 관하여 금석문 자료와 『삼국사기』를 통하여 대부분 6세기에 관직과 관부의 분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법흥왕·진흥왕대에 비로소 이루어지고 진평왕대에 하나의 획기적인 발전기를 맞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계열화된 신료조직체계 내부에는 관직과 관부의 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그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국가 행정은 관직과 관부의 설치가 미숙한 상황에서도 집행되었을 것이 분명하며 소수의 관직과 관부만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국가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비록 관직이나 관부의 설치가 이루어져 있지 못한 상태였지만 후일의 관직 분화를 예상케 하는 특정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신료들이 등장하고 있다. 요컨대 4세기 후반의 내물 마립간대 이후 신료집단은 이미 중앙행정담당신료와 국왕 근시신료의 큰 범주와 계열화가 이루어진 내부에서 특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장악하는 신료들이 출현하였고 이는 5세기 후반부터 관직의 분화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²⁸⁾

그리고 국가로 성장한 사회가 정복전쟁을 수행하게 되자 종래의 신앙은 새로운 질서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불교를 수용·공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은 집권층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도 종래의 사상적 밑받침만으로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²⁹⁾

또한 정복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사상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복전쟁이 활발한 시기에는 여성들의 활동에 비해서 남성들의 활동을 보다 중시하게 되었다.³⁰⁾

2. 토착신앙 담담자의 변화

28)李文基, 1990, 『新羅 上古期の 統治組織과 國家形成 問題』,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pp. 264~268.

29) 김정배, 1975, 『佛敎傳來 前의 韓國上代 社會相』, 『崇山朴吉眞博士華甲紀念韓國佛敎思想史』; 1980, 『韓國 古代史論의 新潮流』, 고려대학교출판부.

30) 최광식, 2007, 앞의 책, pp. 322~323.

1) 日官의 등장과 역할

5세기 후반 日者는 국가의 관제 속에 편입되어 日官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日者가 5세기 日官으로 변화하면서 역할 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라-8) 六月十二日 有彗星孛于東方 十七日 又孛于西方 日官奏曰 不封爵於琴笛之瑞 於是冊號神笛 爲萬萬波波息 彗乃滅 後多靈異 文煩不載 世謂安常爲俊永郎 徒 不之審也. 永郎之徒 唯眞才繁完等知名 皆亦不測人也 [詳見別傳](『三國遺事』卷三 塔像四 栢栗寺).

라-9) 第三十一神文大王 諱政明 金氏 開耀元年辛巳七月七日卽位 爲聖考文武大王 創感恩寺於東海邊[寺中記云 文武王欲鎮倭兵 故始創此寺 未畢而崩 爲海龍 其子神文立 開耀二年畢排 金堂砌下 東向開一穴 乃龍之入寺 旋繞之備 蓋遺詔之葬骨處 名大王岩 寺名感恩寺後見龍現形處 名利見臺] 明年壬午五月朔[一本云 天授元年 誤矣] 海官波珍浪朴夙清奏曰 東海中有小山 浮來向感恩寺 隨波往來 王異之命日官金春質[一作春日] 占之曰 聖考今爲海龍 鎮護三韓 抑又金公庚信 乃三十三天之一子 今降爲大臣 二聖同德 欲出守城之寶 若陛下幸海邊 必得無價大寶 王喜 以其月七日 駕幸利見臺 望其山 遣使審之 山勢如龜頭 上有一竿竹 晝爲二夜合一(『三國遺事』卷二 紀異二 萬波息笛).

라-8)의 사료는 효소왕대에 혜성이 동쪽과 서쪽에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日官이 “가야금과 저대의 상서에 작위를 봉하지 않은 까닭입니다.”라는 풀이를 하는 기사이다. 이것을 통해 日官은 천문 현상에 대한 관찰과 그것에 대한 풀이로 왕에게 자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9)의 사료는 海官 朴夙清이 왕에게 아뢰기를 “동해의 바다에 작은 산이 물에 떠서 감은사를 향에 오는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은 日官 金春質에게 점을 치도록 하였으며 日官은 “돌아가신 부왕께서 바다의 용이 되어 삼한을 수호하고 있으며 김유신도 33천의 한 아들로 인간 세상에 와서 대신이 되었으며 바다로 나가면 큰 보배를 얻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海官 朴夙清은 바다에 작은 산이 떠다니는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발견을 하였으며, 日官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관찰을 하고 풀이를 위하여 점을 치고 그에 대한 결과로 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을 통해 日官의 역할은 천문현상에 관찰 풀이 외에도 비정상적인 현상의 관찰과 풀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음에 살펴 볼 사료는 日官이 천문현상에 관한 관찰 풀이를 하고 있으며,

日官과 僧侶가 함께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라-10)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竝現 浹旬不減 日官奏請緣僧作散花功德
則可讓 於是潔壇於朝元殿 駕幸青陽樓 望緣僧 時有月明師 行于阡陌時之南路 王
使召之 命開壇作啓(『三國遺事』卷五 感通七 月明師兜率歌).

라-10)의 기사는 경덕왕 19년(760) 경자 4월 초하루에 해가 둘이 나란히 나타나
열흘이 되도록 그대로 있었는데, 日官이 왕에게 아뢰기를 “인연이 닿는 승려를 청
하여 散花功德을 베풀면 그 재변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소지마립간 10년(488) 사금갑 설화는 불교와 토착신앙간의 대립을 보여주
었다. 반면 이 기사는 토착신앙의 담당자인 日官이 승려로 하여금 산화공덕을 통
해 액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토착신앙과 불교의 갈등이 해소 되
어 서로 융화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초기국가 단계에서는 초자연적 자연현상이 왕위 계승과 국가의 중대사에 막대
한 영향을 끼쳤다. 日者의 경우 천문 현상과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관찰과 풀이
를 통하여 왕에게 자문하고 있어 국가 중대사에 관한 영향력이 매우 높았을 것이
다. 그러나 소지마립간대 이후 천재지변 등의 초자연적 현상이 왕위 계승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며, 日官의 국가 관제 속으로의 편입으로 日官의 역할에
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라-10)의 사료에서는 해가 둘이
나타난 것에 대하여 日官이 해결 방법을 제시 하였으나, 해결책은 중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 것은 日官의 역할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³¹⁾

2) 老翁·老人의 등장과 역할

신라의 초기 老嫗는 양육 보호의 역할이 중시 되었으며, 왕실 밖에서 왕의 자문
자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부여의 老嫗의 존재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老嫗는 경험을 많이 취득한 연장자의 개념으로 賢者 존재로써 왕에게 자문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백제의 老嫗는 불길한 징후를 알려주는 존재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들어서면서 老嫗의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으면서
老翁과 老人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마-1) 公年十五歲爲花郎 時人洽然服從 號龍華香徒 眞平王建福二十八年辛未

31) 박은애, 2007, 앞의 논문, p. 162.

公年十七歲 見高句麗 百濟靺鞨侵國疆 慷慨有平寇賊之志 獨行入中嶽石 齊戒告天誓盟曰 敵國無道 爲豺虎以擾我封場 略無寧歲 僕是一介微臣 不量材力 志清禍亂 惟天降監 假手於我 居四日 忽有一老人 被褐而來曰 此處多毒蟲猛獸可畏之地 貴少年爰來獨處 何也 答曰 長者從何許來 尊名可得聞乎 老人曰 吾無所住 行止隨緣 名則難勝也 公聞之 知非常人 再拜進曰 僕新羅人也 見國之讐 痛心疾首 故來此 冀有所遇耳 伏乞長者憫我精誠 授之方術 老人默然無言 公涕淚懇請不倦 至于六七 老人乃言曰 子幼而有并三國之心 不亦壯乎 乃授以秘法曰 慎勿妄傳 若用之不義 反受其殃 言訖而辭行二里許 追而望之 不見 唯山上有光 爛然若五色焉 (『三國史記』卷四十一 列傳一 金庾信 上).

마-2) 遂與壯士仇近等十五人詣平壤 見蘇將軍曰 庾信等領兵致資糧 已達近境 定方喜以書謝之 庾信等行抵楊陝 見一老人問之 具悉敵國消息 賜之布帛 辭不受而去 庾信營楊陝 遣解漢語者仁問·良圖及子軍勝等達唐營 以王旨軍糧 定方以食盡兵疲不能力戰 及得糧 便廻唐 良圖以兵八百人 泛海還國(『三國史記』卷四十二 列傳二金庾信 中).

마-1)의 기사는 김유신의 어린 시절에 관한 것으로, 김유신이 어렸을 때부터 삼국통일의 뜻을 품고 있었으며 뜻을 이루기 위해 老人에게 비법을 전수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삼국통일에 필요한 비법을 老人이 전수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마-2)의 기사는 老人이 김유신에게 적국의 동태를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마-1)과 마-2)의 기사에 보이는 老人을 앞에서 살펴 본 老嫗 기사와 비교해 보면, 老嫗의 경우 왕과 왕비를 기르고 보호하여 주고 있는데 반해 老人의 경우 삼국통일전쟁에 지대한 공을 세운 김유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三國史記』의 경우 老嫗에 관한 기사는 미추왕 1년(300)까지 나오고 그 후에는 소지왕 22년(508) 老翁에 관한 기사가 보이며, 진평왕 7년(611)에 老人에 대한 기사가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그 역할에도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老嫗의 경우 왕과 왕비 등의 왕실과 관련된 인물 기사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반면 老翁의 경우 日官·분수승과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老人은 삼국통일전쟁에 지대한 공을 끼친 김유신의 기사에 나타난다. 이것은 신라 정치체제가 완비되어가고 정복단계에 들어서면서 남성의 지위가 격상되었고, 또 불교의 영향을 받아 남성이 숭배된 까닭에 老嫗가 老翁이나 老人으로 바뀌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또한, 上代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왕의 養母·保

32) 崔光植, 1981, 앞의 논문, pp. 16~23.

護靈 역할과 국가 중대사에 관한 왕의 자문적 역할을 한 老嫗에 비하여 老人·老翁이 왕실 중요인물에 대한 養母·保護靈의 역할은 찾아 볼 수 없으며, 국가 중대사에 자문적 역할 면에서도 축소됨을 알 수 있다.

3) 국가 멸망시기 巫의 재등장

『三國遺事』·『三國史記』에 나오는 巫관련 기사는 대부분 1~3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3세기 이후 관련기록이 없다가 고구려와 백제의 국가 멸망시기에 다시 巫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바-1) 李世勣攻遼東城 晝夜不息 旬有二日 帝引精兵會之 圍其城數百重 鼓聲振天地 城有朱蒙祠 祠有鎖甲鈹矛 妄言前燕世天所降 方圍急 飾美女以婦神 巫言 朱蒙悅城必完 勣列砲車 飛大石過三百步 所當輒潰 吾人積木爲樓 結絙罔 不能拒 以衝車撞陴屋碎之(『三國史記』 卷二十一 高句麗本紀九 寶臧王 四年).

바-2) 二十年春二月 王都井水血色 西海濱小魚出死 百姓食之不能盡 泗河水赤如血色 夏四月 蝦蟆數萬集於樹上 王都市人無故驚走 如有捕捉者 僵仆而死百餘人 亡失財物不可數 五月 風雨暴至 震天王道讓二寺塔 又震白石寺講堂 玄雲如龍東西相鬪於空中 六月 王興寺衆僧皆見若有船楫 隨大水入寺門 有一犬狀如野鹿自西至泗河 岸向王宮吠之 俄而不知所去 王都犬集於路上 或吠或哭 移時即散 有一鬼入宮中大呼 百濟亡 百濟亡 卽入地 王怪之 使人掘地 深三尺許有一龜 其背有文曰 百濟同月輪 新羅如月新 王問之 巫者曰 同月輪者滿也 滿則虧 如月新者未滿也 未滿則漸盈 王怒殺之 或曰 “同月輪者盛也 如月新者微也 意者國家盛而 新羅微者乎” 王喜(『三國史記』 卷二十八 百濟本紀六 義慈王 二十年).

바-1)의 사료는 고구려의 멸망 위기에 巫가 주몽의 사당에서 주몽신과 접신하여 고구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2)의 사료는 巫가 거북의 등에 쓰인 글귀를 풀이하여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1)와 바-2) 사료의 공통적인 특징은 백제·고구려의 멸망 위기에 다시 巫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巫를 찾는 이유에 대한 정의는 협의와 광의의 의미로 나눌 수가 있다. 협의적 의미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자 할 때 신비로운 존재에 의탁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점복이 개인적인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행위라고 했을 때 따르는 광의적인 의미로는 미래세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자 어떤 사건이나 일의 길흉화복을 판단하고 예측하고

자 하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판단 행위라 할 수 있다.³³⁾

앞의 정의를 두고 봤을 때 국가 멸망기에 다시 巫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후자인 즉 미래세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인간의 근원적인 본질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인간은 예기치 않은 위기에 봉착하면 어딘가 의지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이때 巫는 부담없이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巫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나 극복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풀이를 내려준다. 그러면 인간은 그것의 효율성 여부를 떠나 나름대로의 조취를 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일단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³⁴⁾

IV. 결 론

앞의 논지를 요약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고대 토착신앙의 중심에는 초자연적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토착신앙의 담당자이다. 巫·老嫗·日者 등은 『三國史記』·『三國遺事』에서 토착신앙의 담당자로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시기에 등장하여 이에 주목된다. 이들은 또한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왕의 측근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토착신앙의 담당자 중 巫의 경우 1-3세기에 기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占卜을 통한 왕의 자문자적 역할과 함께 治病을 담당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巫는 왕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층을 대상으로 治病과 자문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巫의 기사가 국가 멸망시기에 다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위기를 봉착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이 백제와 고구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33) 정승안, 1997, 『韓國社會에서 占卜의 社會的 意味』, 부산대학교 사회학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2~45.

34) 장성숙, 2005, 『토속신앙과 상담의 관계: 점복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p. 742.

老嫗의 기사는 대부분 신라 上代에 나타나고 있으며, 모두 왕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에 老嫗의 역할은 왕이나 왕비 등 왕실 주요 인물의 養育 능력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으며, 백제의 老嫗은 남자나 여우로 변화해 불길한 일에 대한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老嫗에 관한 기사는 미천왕대까지 나타나며, 이후 소지마립간 22년(500) 老翁에 관한 기사가 보이고 있어 이에 주목할 만하다. 흥미로운 점은 性이 변화하여 여성에서 남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그 역할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신라 정치체제가 완비되어가고 정복단계에 들어서면서 남성의 지위가 격상되었고, 또 불교의 영향을 받아 남성이 숭배된 까닭에 老嫗가 老翁이나 老人으로 바뀌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日者의 경우 주로 천문에 대한 관측과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그 변화를 해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日者는 왕에게 존경을 받거나 권위를 인정받았다기보다는 천체를 관측한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을 왕에게 고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으므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왕에 대한 조언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日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巫나 老嫗와 달리 국가의 관제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논문투고일 : 8월 8일, 논문심사완료일 : 8월 24일, 논문게재확정일 : 8월 25일]

[참고문헌]

1. 史料

- 『三國史記』, 『三國遺事』, 『史記』, 『周書』, 『後漢書』, 『高麗史』, 『高麗史節要』

2.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 金聖三, 1977, 『韓國氣象學史』, 『韓國現代文化史大系』 4.
- 『中國歷代職官辭典』, 1980, 日中國族科學研究所編, 圖書刊行會.
- 朴星來, 1982, 『韓國科學史』, 한국방송사업단.
-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일조각.
- 姜英卿, 1991, 『新羅 傳統信仰의 政治·社會的 機能 研究』, 淑明女子大學校博士學位論文.
- 辛鍾遠, 1992, 『新羅 初期佛教史 研究』, 民族社.
- 『中國官制大辭典』(上), 1992, 黑龍江人民出版社.
- 金相鉉, 1999,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 장인성, 2001, 『백제의 종교와 사회』, 서경.
- 金英美, 2002, 『강좌 한국 고대사 -古代의 人間觀-』 8,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진호태, 2004, 『고대 한국의 신앙과 제사의례』, 울산대학교출판부.
- 崔光植, 2006, 『한국고대사 입문』 2, 신서원.
- 최광식, 2007, 『한국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고려대학교출판부.

3. 논문류

- 任東權, 1967, 『三國時代의 巫·占俗』 『白山學報』 3.
- 許興植, 1975, 『高麗時代의 國師·王師制度와 그 機能』 『歷史學報』 67.
- 李熙德, 1977, 『高麗時代의 天文觀과 儒敎主義의 政治理念』, 『韓國史研究』 17.
- 金貞培, 1978, 『蘇塗의 政治史의 意味』 『歷史學報』 79.
- 朴星來, 1980, 『瞻星臺에 대하여』 『한국과학사학회지』 2(1).
- 辛鍾遠, 1980, 『古代 日官의 性格』 『韓國民俗學』 12.
- 崔光植, 1981, 『『三國史記』 所載 老嫗의 性格』 『史叢』 25.

- 申滢植, 1983, 「金庾信家門의 成立과 活動」 『이화사학연구』 13·14합, 이화사학연구소.
- 辛鍾遠, 1984, 「三國史記 祭祀志 研究」 『史學研究』 38.
- 全相運, 1985, 「高句麗의 科學과 技術, 그 研究現況과 課題」 『東方學志』 49.
- 李昌叔, 1986, 「新羅眞平王代의 政治的 性格」 『韓國史研究』 56.
- 金杜珍, 1990, 「新羅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改革」 『震檀學報』 69.
- 辛鍾遠, 1990, 「古代의 日官과 巫」 『국사관논총』 13.
- 李文基, 1990, 「新羅 上古期의 統治組織과 國家形成 問題」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 韓泰植, 1991, 「憬興의 生涯에 대한 新考察」 『佛敎學報』.
- 金昌賢, 1992, 「高麗時代 日官에 관한 一考察 -日官의 役割과 그 地位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45.
- 南東信, 1992, 「慈藏의 佛敎思想과 佛敎治國策」 『韓國史研究』 76.
- 張寅成, 1994, 「百濟의 術數」 『百濟研究』 24.
- 崔光植, 1995, 「한국 고대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 『韓國古代史研究』 8.
- 金相鉉, 1996, 「四天王寺의 創建과 意味」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 17.
- 양정석, 1996, 「신라 麻立干期 왕권강화과정과 지방정책」 『한국사학보』 창간호.
- 최석영, 1996, 「巫와 日官의 갈등에 대한 역사적 고찰」 『비교민속학』 13.
- 徐永大, 1997, 「韓國古代의 宗教職能者」, 『한국고대사연구』 12.
- 李熙德, 1997, 「高麗의 天文官制」 『東方學志』 96.
- 정승안, 1997, 「韓國社會에서 占卜의 社會的 意味」, 부산대학교 사회학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熙貞, 2000, 「샤먼의 神靈 接觸 形式」 『샤머니즘 연구』 2.
- 金在庚, 2002, 「新羅 土着信仰의 分化發展」 『歷史學報』 174.
- 송화섭, 2002, 「韓國古代社會에서 聖母와 老嫗」 『白山學報』 64.
- 우선정, 2002, 「麻立干의 位相과 性格」 『慶北史學』 25.
- 장성숙, 2005, 「토속신앙과 상담의 관계 -점복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박은애, 2010, 「한국 고대의 日耆와 日官」 『지역과 역사』 27.